

프레게의 퍼즐

심 철 호
(강릉대 철학과 강사)

I. 문제 제기

프레게의 논문 “뜻과 지시체에 관하여”는 서두에 동일성 진술들에 관한 프레게의 퍼즐이라는 화두를 제시한다.

동일성을 이름 “a”와 “b”가 지칭하는 것들간의 관계로 본다면, 이를테면 $a=b$ 가 참인 경우, $a=a$ 를 $a=b$ 와 구분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¹⁾

전통적으로 프레게 퍼즐에 대한 해석은 a와 b가 같은 대상을 나타내는 이름이라 할 때, “ $a=a$ ” 형식의 진술이 분석적이요 시시한데 반하여, “ $a=b$ ” 형식의 진술이 정보적일 수 있으며, 이 차이는 곧 인식가치의 차이요, 프레게는 이 인식가치의 차이는 두 표현 a와 b가 지시체는 같지만 뜻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프레게 해석에 관한 한 적어도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이도 있겠다. 그러나 문제가 그리 간단치가 않다. 그는 왜 동일성 문장의 인식가치의 차이에 주목했는가? 그가 말하는 인식가치란 정확히 무엇인가? 인식가치의 차이는 뜻/지시체 구분을 불가피하게 했는가? 이 구분은 논리주의 계획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등등의 문제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그러나 소위 프레게의 퍼즐로 알려져 있는 위의 인용구절은, 그로

1) Frege, G. *Translations from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Frege*(以下 「번역선」으로 약칭) eds. by P. T. Geach & M. Black, 1952, p. 56.

부터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거리 및 그에 대한 각종 해결책들은 접어 두고라도, 정확히 이것이 무엇에 관한 퍼즐인지에 대한 정식화에서부터 문제되고 있다.²⁾ 도대체 무엇이 프레게의 퍼즐이며, 그것이 왜 수수께끼란 말인가? 어떤 이들은 프레게 퍼즐은 순수한 의미에서 수수께끼가 아니며, 이는 궁극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 아닌 해체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³⁾ 반면 다른 이들은 이 퍼즐이 진정한 퍼즐일 뿐 아니라 이로부터 새로운 퍼즐들이 속속 출현한다고 주장한다.⁴⁾ 프레게 퍼즐의 수수께끼성 여부에서부터 논란이 있음은 이 퍼즐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철학적 문제들에 관한 판도라의 상자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우선 급한 것은 프레게 퍼즐이란 과연 어떤 퍼즐인지에 대한 이해다.

정확히 이 글의 주목적은 이 퍼즐에 대한 이후의 분석철학에서의 해결책들에 대한 공방⁵⁾이 아니라 이 퍼즐이 제기하는 진정한 문제

2) 프레게 퍼즐을 어떤 식으로 정식화하느냐에 따라 그 해석과 처방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는 Tascheck의 논문과 Corazza & Dokic의 논문을 참조할 것.

3) 예컨대 Wettstein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1989: p. 175):

두 이름이 지시체가 같음을 모르면서도 그 이름들을 話者が 쓸 수 있다는 발상에 그토록 심각한 퍼즐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명백한가? 내가 지금 고무하고 있는, 관점의 근본적 변화는, 이 퍼즐의 해체를 훨씬 더 劇적으로 만든다. 그 지시체에 대한 실질적인 인지적 결정이 없이도 무엇인가를 지시할 수 있다면, 이름의 사용이 인식적으로 사실상 맹목적일 수 있다면, 두 이름이 지시체가 같음을 모른 채 두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왜 조금이라도 놀라운 일이 될 수 있단 말인가? --- Corazza, E & Dokic, J. "Why is Frege's puzzle still puzzling?" in Biro, J. & Kotatko, P.(1995)에서 재인용.

Wettstein의 프레게 의미론 비판의 주된 발상은, 외연이 다른 두 용어에 동일한 정보들을 결부시켜서 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 '느릅나무'와 '너도밤나무'의 외연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도, 그런 용어들을 쓸 수는 있다. 그러나 단어의 인지적 가치는 단어에 결부된 일단의 정보에 의해 결정될 수는 없다. 단어든 문장이든 정보내용상의 차이가 인지적 가치상의 차이를 유발한다고 보는 것은 전통적 프레게 해석의 한 특징이라 하겠으나, Taschek(1992)은 인식가치의 차이는 정보내용의 차이와 무관함을 논증하고 있다.

4) 이에 대해서는 Salmon, N. *Frege's Puzzle*, ch. 7, 및 Corazza, E & Dokic, J., *Why is Frege's puzzle still puzzling?*을 참조할 것.

무엇인지를 프레게 당시의 상황으로 되돌아가서 재구성하는 것이다.

II. 동일성 관계의 원초성

데미트에 따르면 동일성 관계를 논리적 관계로 만든 최초의 인물은 프레게였다.⁶⁾ 프레게의 혁신적 논리 체계인 「개념기호」의 체계에서 동일성은 조건, 부정, 일반성 기호 등과 함께 원초적 논리상항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동일성 기호는, 조건이나 부정 기호처럼 복합 문장을 만드는 문장 형성 연결사가 아닌, 원자문장을 만드는 관계 표현이라는 점에서 다른 논리상항과 다르다. 어느 면에서 동일성 기호는 원초적 논리상항이라기보다 그냥 일종의 관계 술어로 간주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다. 왜 다른 관계 술어들은 놔두고 동일성 기호만 원초적인 것으로 간주했는가? 프레게의 논리체계가 고차(higher-order) 양화 체계고, 그가 동일성에 대한 라이프니츠 법칙을 받아들이므로, 동일성 관계를 이차 양화를 이용하여 동치관계에 의해 정의할 수도 있었겠다. 그러나 프레게는 동일성 관계는 정의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모든 정의는 일종의 동일성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⁷⁾ 동일성 관계를 다른 무엇인가에 의해서 정의하는 것 자체가 이미 순환적이라는 것이다.⁸⁾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이유는 프레게의 논리주의 계획에서 동일성 문장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산수의 기초」(以下 「기초」로 줄임)의 數 논의는 상당 부분 數的 동일성과 관련된다. 그는 수들을 (개념이

5) 이 퍼즐의 해결을 위해 프레게의 뜻 또는 그와 유사한 개념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통칭 新프레게안으로는 Evans, McDowell, Peacocke 등이, 그런 개념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소위 新러셀리안으로는 Kaplan, Salmon, Perry 등이 대표적이다.

6) Dummett, M. *Frege: Philosophy of Language*, London, 1973, p. 542.

7) 「번역선」, p. 80.

8) 그리고 때로 어떤 정의들은 일종의 약식 표기로 이용될 수 있다는 표기법 상의 편리함 또한 원초적 논리상항으로서의 동일성 기호 도입의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Begriffsschrift*, § 9.

아닌) 대상으로 보았을 뿐 아니라, 대상들을 존재론적으로 진지하게 다루려면 대상들에 대한 동일성 기준들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만일 우리가 수에 대한 관념이나 직관이 전혀 없다면, 수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여겨지는가? 문장의 문맥 속에서만 단어는 무엇인가를 의미한다. 그래서 數 표현이 나오는 문장의 뜻을 설명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것은 처음엔 상당한 자의성을 남겨둔다. 그러나 우리는 독립적 대상들은 數 표현들 하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이미 확립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의 뜻을 가져야 하는 모종의 문장이 주어지는데, 재인식을 표현하는 문장들이다. 만일 기호 a 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모든 경우들에서 b 가 a 와 같은지 여부를 결정해주는 기준을 가져야 한다. 비록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능력 안에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⁹⁾

그러나 그후 곧 그는 소위 시이저 문제(Cesar problem)와 관련하여 문맥적 정의를 배척하고서¹⁰⁾,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數를 개념의 외연과 동일시하는 명시적 數 정의를 택한다. 그런데 「산수의 근본법칙」(以下 「근본법칙」으로 줄임)에서 치역(Wertverlauf) 도입에 관한 가장 심각한 문제들 중 많은 것이 동일성과 연결된다. 「근본법칙」의 약명높은 제5공리(공리 V)는 치역의 동일성 결정에 실패하며, 협약적 규정에 의해 시이저 문제를 피하려던 시도조차 그의 체계의 모순 때문에 수포로 돌아가고만다. 결과는 실패로 끝났지만 「개념기호」에서부터 「근본법칙」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동일성은 원초적 개념으로서 항상 논리주의 계획의 핵심 문제로 자리잡고 있었다. 사실 초기의 「개념기호」 체계와 후기의 「근본법칙」 체계는 외양이나 동기 상으로 별 차이가 없다. 산수 진리가 논리적 진리임을 보이려는 논리주의 계획이 공식적으로는 「기초」에서 표명되었지만, 「근본법칙」의 서문은

9) *Grundlagen der Arithmetik*(1884), trans. by J. L. Austin, *The foundations of arithmetic*, Oxford, 1953(이하 「기초」로 약칭) § 62.

10) 시이저 문제에 대해서는, Dummett, M. *Frege: Philosophy of Mathematics*, 1991, 160쪽 이하 참조.

이 계획이 보다 초기부터의 구상이었다고 전하고 있다.¹¹⁾ 논문 “뜻과 지시체에 관하여”가 「근본법칙」 제1권보다 불과 1년 전에 나왔고, 뜻/지시체 구분이 함수의 치역 도입과 더불어 「개념기호」 체계에서 「근본법칙」에 이르는 사이의 주요 변화로 꼽히고 있음은¹²⁾, 뜻/지시체 구분에 대한 발상의 근거를 적어도 「개념기호」까지 소급해서 추적해야 할 명백한 이유를 제공해준다.

앞서의 인용구에서 보다시피 “뜻과 지시체에 관하여”는 「개념기호」에서 동일성을 기호들간의 관계로 보았던 이유를 간략히 음미한다.

나는 「개념기호」에서는 後者를 받아들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보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a=a$ 와 $a=b$ 는 인식가치가 상이한 진술들이다: $a=a$ 는 선형적으로 타당하고 칸트에 따라 분석적이라 불리는 반면, $a=b$ 형식의 진술들은 우리 인식의 매우 귀중한 확장을 흔히 포함하며 언제나 선형적으로 확립될 수는 없다.¹³⁾

칸트에 따르면 $a=b$ 형식의 산수 진리는 분석적 진리가 아니다. 칸트가 그런 주장을 한 것은 그가 전통논리학에 따라 동일률을 모순률, 배중률과 함께 최고의 논리적 원리로 생각했으며, 또한 산수 법칙들이 분명히 동일률만으로는 도출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칸트에게 동일률은 모든 논리학이 의존하는 원리의 하나이며, 산수 진리들이 동일률만으로 도출될 수 없다면 논리적 진리라 할 수 없다. 동일률은 모든 것은 그 자신과 동일하다는 것만을 말할 뿐이어서, 이 메마른 동어반복으로부터는 어떤 실질적인 수학적 진리도 도출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레게는 산수 진리를 분석적이라고 보았다. 프레게 철학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탐구로 유명한 슬루가(H. Sluga)에 따르면 이러한 프레게의 발상은 직접적으로 로체(Lotze)로부터 유래했다고 한

11) *Grundgesetze der Arithmetik*, vol 1(1893), ed. & eng. trans. by M. Furth, *The Basic Laws of Arithmetic*, Berkeley, 1964(이하 「근본법칙」으로 약칭) p. viii.

12) 「근본법칙」 p. x.

13) 「번역선」, p. 56.

다.¹⁴⁾ 그에 의하면 로체는 그의 「논리학」에서 산수 진리의 지위의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동일성 이론을 제시하는데 프레게처럼 그도 산수가 선험적 종합적이라는 칸트의 견해를 배척한다. 로체는 동일성 진술 표현의 형식/내용간 구분의 도입에 의해 칸트와 다른 노선을 취한다. 또 바로 이 구분 때문에 산수진리들이 논리적이지만 결코 동일률의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로체에 따르면, 만일 두 표현이 동일한 것을 지시한다면, 이 두 표현은 동일한 내용에 상이한 형식을 갖는다. 이를테면 " $7+5=12$ " 같은 산수의 등식은 동일률 " $a=a$ "와 같은 내용을 갖지만 다른 형식을 취한다. 우리는 등식 " $7+5=12$ "에서 그 내용에 관하여 완벽한 동일성 판단을 갖지만 이 등식은 형식적으로 종합적일 따름이다. 왜냐하면 이 등식은 수 12를 두 양(量)들의 합으로서 먼저 나타내주고나서 수의 계열 상의 그 순서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내용에 관한 한 모든 동일성 진술(및 모든 산수 등식)은, 사실상 " $a=a$ "와 같은 말을 하는, 필연적 참이다. 그러나 이 필연적 참은 상이한 형식들로 표상될 수 있다. 그 형식에 따라 동일성 진술은 경험적일 수도 선험적일 수도 있고, 따라서 경험적 필연적 동일성 진술도 선험적 필연적 동일성 진술도 있을 수 있다. 로체는 모든 시사하지 않은 동일성 진술들은 형식에 관한 한 종합적이며, 그 중 일부는 후험종합적, 일부는 선험종합적이라고 말한다. 산수의 등식들은 모두 내용상 동일성 명제(따라서 필연적 명제)들이 동시에 선험적 종합적이라는 것이 그 특성이다.

이는 얼핏 로체가 칸트와 같은 산수觀을 갖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로체는 산수진리가 시공 직관에 기초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를테면 등식 " $7+5=12$ "는 양들이 하나의 또다른 동질적 양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합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불과하다. 이는 직접적 지각의 한 사실로서 틀림없는 동일성 명제다; 그러나 그 명제의 주어와 술어가 관념들의 세계에서 타당하게 나타남은 동일률로부터

14) Sluga, *Gottlob Frege*(1980), pp. 151-3, 및 *Semantic Content and Cognitive Sense*, in Haaparanta, L. & Hintikka, J.(1986) pp. 55-6 참조.

도출되지 않는다. 로체에 따르면 객관적 관념들의 영역은 논리학이 관계되는 영역이다. 거기서 얻는 진리는 논리학의 진리다. 그러나 그런 진리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그 형식에 따라, 선험적 종합적 지식이 되기도 한다. 그것은 관념들의 세계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직접적 이해에 의존한다. 산수 진리들의 필연성을 이해하자면 합해질 수 있는 양들이 관념들의 세계에 속함을 이해해야 한다. 그같은 이해는 직관적, 직접적이라는 한에서 선험적 종합적이다. 사실상 산수의 진리들은 동일률만으로는 도출될 수 없고 추가적인 논리적 원리들이 요구된다. 만일 동일률이 우리가 출발해야 할 유일한 원리라면, 수학적 진리는 결코 발견될 수조차 없다. 로체는 수학이 “보편 논리학의 독립적으로 진보된 분야”라 확신했지만, 그가 수학, 특히 산수의 진리들의 논리적 도출에 필수적이라고 간주한 추가적 논리적 원리들을 해명해주지는 않았다. 이 과제는 프레게에게 이어졌다.

Ⅲ. 「개념기호」에서의 동일성 설명

「개념기호」에서의 동일성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표현에 의해 지칭된 사물과 그 표현이 사물을 지칭하는 방식과의 구분이 있어야 한다. 표현이 사물을 지칭하는 방식은 그 표현이 구성되는 보다 단순한 용어들 및 그 조합에 의해 결정된다. 이를테면, ‘셋별’이란 표현은 그 표현이 새벽에 볼 수 있는 별이라고 나타내는 사물을 결정한다.

동일성 진술이 참이 되는 이유는 두 표현이 지칭하는 사물이 동일하기 때문이고, 참인 동일성 진술이 정보적인 이유는 두 표현이 가리키는 사물을 그 표현들이 두 가지 상이한 방식으로 결정해주기 때문이다. 동일성 진술의 정보성을 설명하자면, 그 표현을, 지칭된 사물들의 관계를 그 표현들이 나타내주는 방식에 관한 진술이라고 받아들여야 하지, 사물들에 관한 진술이라고 간주하면 안된다.

따라서 이런 동일성은 사물이 그 자체에 대해 갖는 관계다. 즉 그런 관계는 사물이 그 자체에 대해 갖는 관계지 결코 한 사물이

다른 사물에 대해 갖는 관계가 아니다. $a=b$ 로써 말하려는 것은 기호나 이름 'a'와 'b'가 같은 것을 지칭한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경우 바로 그 기호들에 관한 말이 될 것이다; 즉, 그 기호들간의 관계가 주장되고 있다 하겠다.¹⁵⁾

「개념기호」에서도 동일성 진술의 정보성 문제를 다루면서, 기하학적 예를 고찰한다.

원주 상의 정점 A가 있고, 한 직선이 이 점을 지나면서 주위를 돌고 있다고 해보자. A를 지나는 직선과 원과의 또다른 교점을 B라 하자... 직선이 A와 만나는 원의 직경과 수직일 때, B가 가리키는 점은 곧 A가 가리키는 점과 같다. 이 경우 이름 B가 이름 A와 같은 내용을 갖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의 같은 이름만을 쓸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오직 위의 대답에 의해서만 그 정당화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같은 점이 두 가지 방식으로 결정된다. (1) 직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2) 직경에 수직인 직선에 상응하는 점 B로서. 두 결정방식 각각에 대해 별도의 이름 A와 B가 대응한다. 따라서 내용동일성에 대한 기호의 필요성은 다음 사실에 의존한다: 같은 내용이 상이한 방식으로 완전히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두 가지 결정방식에 의하여 실제로는 똑같은 것이 주어진다는 점이 한 판단의 내용이 된다. 이 판단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두 결정방식들에 대응하여 그렇게 결정된 것에 대한 두 가지 상이한 이름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런데 판단은 그 판단의 표현에, 이 두 이름을 서로 결합시켜주는, 내용동일성에 대한 기호를 요구한다. 이로부터 똑같은 내용에 대한 상이한 이름들이 항상 별 상관없는 형식의 문제만은 아니고, 오히려 그것들이 서로 다른 결정방식에 결부된다면 이 서로 다른 이름은 문제의 본질에 해당한다. 그럴 경우 내용동일성에 대한 판단은 칸트적 의미에서 종합판단이다.¹⁶⁾

요컨대 결과적으로 A의 내용과 B의 내용이 동일하지만, 양자의 내

15) 「번역선」, p. 56.

16) *Begriffsschrift*, § 8. 정보적 동일성이 칸트적 종합 판단이라는 언급은 “뜻과 지시체에 관하여” 서두에도 되풀이된다.

용이 동일함이 알려지지 이전에 그 내용이 상이한 결정방식에 의해서 주어지므로 그 상이한 결정방식에 상응하여 별도의 이름 A와 B가 필요하고, 두 이름 A와 B가 가리키는 내용이 동일함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이 내용들이 동일하다는 판단을 하게 될 때는 두 이름 A와 B가 동일한 내용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기호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는 분명 동일성 판단을 메타언어적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 즉, 기호 A와 B의 내용에 관한 판단이 아닌, 기호 A와 B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만든다. 그래서 내용 동일성(Inhaltsgleichheit)은 내용 아닌 이름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조건이나 부정과 다르다.

여는 때에는 기호들은 그 내용의 표상에 불과해서 그 기호들이 나타나는 일체의 조합은 단지 그 기호들 각각의 내용들간의 관계를 표현할 따름이지만, 반면 기호들이 내용동일성 기호에 의해 결합되는 즉시 기호들은 돌연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인다;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두 이름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상황이 표시되기 때문이다.¹⁷⁾

위의 구절에서 ‘내용’이란 후기 용어로는 ‘표현의 지시체’에 대응함에 틀림없다. 이 ‘내용’은 그것이 결정되는 방식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프레게는 내용 결정 방식이 그 내용과 결부되어 있는 이름 속에 반영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그는 기하학적 구성에서 동일한 점이 두 가지 상이한 방식으로 이름불려질 수 있다고, 또한 이 점이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주어진 점이 한번은 직관적으로 한번은 기하학적으로 특수한 記述을 만족시키는 점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논증한다. 일반적으로 기호는 그 기호의 내용에 대한 표상이지만, 동일성 진술에서의 기호는 돌연 자기 자신을 표상한다.

따라서 내용 동일성 기호의 도입에 따라 모든 기호가 때로는 그 기호의 내용을 나타내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모종의 애매성(이중성)과 연관되어 있다.¹⁸⁾

17) ibid.

위에서 프레게의 용어 ‘결정방식’(Bestimmungsweise)은 나중에 “뜻과 지시에 관하여”에서 기호의 뜻에 관해 ‘주어지는 양식’(제시양식, die Art des Gegebenseins)이라 말한 것을 강하게 상기시킨다:

이제 기호의 지시체라 할 수 있는 지칭체 뿐 아니라 또한, 그 속에 제시양식이 포함되어 있는, 내가 기호의 뜻이라고 부르고자 하는 것과는 기호(이름, 단어결합, 문자)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¹⁸⁾

“뜻과 지시에 관하여”에서, 프레게는 기호에 대한 세 가지 의미론적 수준을 구분한다: 기호 자체, 기호의 지시체, 기호의 뜻. 「개념기호」에서 내용 결정의 상이한 방식들이 동일성 진술을 정보적있게 하듯, “뜻과 지시에 관하여”에서도 지시체가 주어지는 상이한 방식들이 동일성 진술을 정보적있게 한다. 「개념기호」에도 다음과 같은 수준 구분이 적용가능하다. 기호, 기호의 내용, 기호에 의해 기호의 내용이 결정되는 방식. 즉, 후기의 기호/뜻/지시 대신 기호/내용/결정방식이 구분된다.

IV. “뜻과 지시에 관하여”에서의 前期 이론에 대한 비판

그렇다면 前期이론은 무엇이 잘못이며 왜 그는 뜻/지시체 구분 이론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뜻과 지시체에 관하여”에서의 비판은 다음과 같다:

a=b로써 말하려는 것은 기호나 이름 ‘a’와 ‘b’가 같은 것을 지칭한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경우 바로 그 기호들에 관한 말이 될 것이다; 즉, 기호들간의 관계가 주장되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 관계는 그 이름들이나 기호들이 무엇인가를 이름하는 또는 지

18) 「개념기호」, §8

19) 「번역선」, p. 57.

칭하는 한에서만 성립할 것이다. 이는 두 기호 각각이 같은 지칭체에 연결됨으로써 맺어지는 관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관계는恣意的이다. 아무도 자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건이나 대상을 이용하여 무엇인가에 대한 기호로 삼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 경우 문장 $a=b$ 는 더 이상 사상(Sache) 그 자체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지칭방식(Bezeichnungsweise)에만 관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진정한 지식도 이 속에서 표현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려는 것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바로 이것이다.²⁰⁾

요컨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기호와 그 지시체 뿐이고, 동일성이란 두 기호가 같은 지시체를 가짐의 주장이라면, 동일성의 참 또는 거짓은 어느 기호가 어느 대상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있느냐라는 단지 언어학적 사실에만 의존하게 되고, 또 그래서 동일성이 수행한다고 여겨지고 있는 실질적 정보의 전달을 할 수 없다.

이 논증 자체는 매우 설득력 있지만, 단지 기호와 그 지시체간의 지칭관계만을 다루고, 「개념기호」에서의 프레게의 논변에서 결정적이었던 결정방식의 차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수상함이 있다. 더욱이 프레게는 a, b, c가 삼각형의 中線이라면, a와 b의 교점은 b와 c의 교점과 같다는 또 다른 기하학적 예를 들면서 뜻과 지시체의 구분을 도입한다. 물론 中線의 교점들이 같음은 직접적으로 자명한 것이 아니고 기하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 예는 「개념기호」의 예보다 낫기는 하다. 여기서 프레게는 교점이 주어지는 상이한 방식들을 표현 'a와 b의 교점'과 'b와 c의 교점'의 뜻이라 한다. 즉, 「개념기호」에서 결정방식이라 했던 것을 뜻이라 부른다. 그렇다면, 내용을 지시체라 하고 결정방식을 뜻이라 하는 용어법 상 차이 말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도대체 앞의 인용구절은 「개념기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는 말인가?

프레게 퍼즐의 해석 자체가 수수께끼가 되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다. 프레게가 「개념기호」에서의 이론을 배척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막상 “뜻과 지시체에 관하여”에서 지적된 잘못이란 사실

20) 「번역선」, pp. 56-7.

상 「개념기호」에서 지적된 것을 벗어나지 않는다. 「개념기호」의 어느 대목이 어떻게 잘못인지에 대한 해명이 불분명하면서도 「개념기호」의 이론을 배척함을 공언하기 때문에 많은 해석가들은 「개념기호」 이론의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추적하는 데에 골몰했다.

이를테면 슬루가는 초기의 설명에서 가정되고 있는 기호 사용상의 애매성을 용인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난점을 지적한다.²¹⁾ 기호들은 때로는 지칭된 사물을 나타낸다고 얘기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호 자체를 나타낸다고 얘기되기도 한다. 이 원리는 모종의 技術的 약점이 있다. 이를테면, 다음 추론의 경우를 보자.

대상 a가 속성 F를 갖고, 이름 a와 이름 b는 동일하다. 따라서
대상 b는 속성 F를 갖는다.

「개념기호」에 따르면, 처음의 'a'는 지칭된 대상을 나타내고 두번째의 'a'는 기호 자체를 나타내는 반면, 처음의 'b'는 기호 자체를 나타내고 두번째의 'b'는 지칭된 대상을 나타낸다. 그런데 두 개의 복합 표현(즉, 한정기술) 'n'과 'm'을 'a'와 'b' 대신 대치해보자. 그 중 어느 한 쪽만 대치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둘 다 대치시켜야 하는가? 어느 쪽이든 난점을 초래한다. 이런 이유에서 프레게는 나중에 기호의 사용(use)과 언급(mention)을 엄밀히 구분했으며, 이 구분이 동일성에 대한 초기 설명을 포기하게 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 슬루가의 추정이다. 그러나 슬루가 자신도 인정하듯이, 초기의 설명이 엄밀한 사용-언급 구분을 수용할만큼 수정될 수는 없었는지는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같은 해명은 도대체 프레게가 전기 이론을 포기하고 뜻/지시체 구분을 도입한 이유로서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들과 전혀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왜 前期 해명을 버렸을까? 동일성 진술들이 기호들에 관한 기호라는 발상을 거부하게 된 것 때문만은 아님이 분명하다.

한편 사이먼스(P. Simons)는 「개념기호」 이론에 대한 프레게의 진

21) Sluga, H. *Gottlob Frege*, 1980, p. 152.

정한 반론은 분명 결정방식들이라는 발상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²²⁾ 사이먼스에 따르면 오히려 프레게의 반론은, 동일성 진술들이 기호들에 관한 것이며 그 기호들이 동일한 내용을, 혹은 후기 용법에 따라, 동일한 지시체를 갖는다는 발상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뜻과 지시에 관하여”에서 동일성 진술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마치 그가 동일성진술이 지시체에 관한 것이라는 발상을 이미 거부한 것처럼 보인다. 동일성 진술이 지시체에 관한 것이라는 발상은 동일성 진술의 정보성의 문제를 일으키므로 「개념기호」에서 그는 그 정보성을 해명코자 메타언어적 이론을 내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뜻과 지시에 관하여”에서 동일성 진술이 표현의 뜻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그 해결책은, 뜻/지시 구분의 도입에 의해서 프레게가 이제부터 이름이나 표현이 그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해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종류의 무엇인가만 있다는 단순 발상을 거부하는 것이다. 즉, 동일성 진술은 지시체에 관한 진술인 동시에 뜻에 관한 진술이기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오히려 칼(W. Carl)은 전기의 결정방식이라는 발상 자체가 후기의 프레게의 표적이 되었다고 지적한다.²³⁾ 그는 전기의 상이한 결정방식들은 내용에 대한 인식적 접근을 획득하는 상이한 방식들이며, 이들이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지 여부는 “상관없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문제의 핵심”와 관련된다(15/126)는 점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개념기호」의 해결이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동일성 진술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의 내용(지시체)을 결정해주는 방식이라는 의미에서의 이 인식적 ‘결정방식’ 개념의 도입이 「개념기호」에서의 “판단의 논리적 요소들”에 관한 이론의 기본 원리들로부터 도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이 이론은, 판단 내용에 관한 대상/개념 구분과 기호/기호내용 간의 의미론적 구분이라는 두 기본 원리로 구성되는데, 만일 논항/함수로의 문장 분석 방법을 첫째 구분에 첨가한

22) Simons, P. The next best thing to sense in Begriffsschrift, in Biro, J. & Kotatko, P.(1995)

23) Carl, W. *Frege's Theory of Sense and Reference: its Origins and Scope*, Cambridge, 1994, ch. 3.

다면, 프레게의 개념 형성 이론, 즉 소위 우선성 논제를 얻을 수 있다. 둘째 구분에 의해, 논항의 내용은 이름이 나타내는 것이라고 식별되며, 개념은 함수가 나타내는 것이 된다. 그러나 대상의 결정방식이라는 개념은 인식론적 개념으로서 이 틀 내에서 설명될 수 없다. 즉, 논항/함수 분석법은 상이한 기호들의 내용동일성의 인식적 의의를 설명해줄 수 없을 뿐더러, 기호/내용 구분 또한 기호의 의미론적 특성으로서의 결정방식에 대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커리(Currie)는 前期 이론에 대한 비판의 핵심을 기호 내지 이름과 그것이 지칭하는 사물의 관계가 '자의적'이라는 점에서 찾는다.²⁴⁾ 사실 프레게의 말대로 '아무도 자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건이나 대상을 이용하여 무엇인가에 대한 기호로 삼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그리고 만일 동일성 진술이 이름들에 관한 주장이고 또 만일 이름과 그 지칭 대상과의 관계가 자의적이라면, ' $a=b$ '는 결코 진정한 지식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프레게의 논증이었다. 그러나 프레게에 따르면 ' $a=b$ '는 항상 시사한 지식을 나타내는 진술은 아니다. 그렇다면 기호와 그 지칭 대상간의 관계가 마냥 자의적이라고 방치할 수만은 없다. 더욱이 $a=a$ 와 $a=b$ 의 차이는 기호들간의 차이가 지칭되는 대상이 주어지는 양식상의 차이에 일치할 때만 생길 수 있다. 만일 대상이 주어지는 양식(또는 대상의 결정방식) 상의 차이와 기호상의 차이가 일정하게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면, 상이한 기호의 사용은 단지 話者 쪽의 자의적 선택 이상의 것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물의 본성 상 차이와 상응할 수 있다. 이 차이는 동일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한 방식들이다. 그의 기하학적 예에서 보듯 동일한 대상을 상이한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프레게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이제 기호와 연계되어 있음을 생각하는 것은 -- 그 기호가 지칭하는 것 외에도, 그 기호의 지시체라고 불릴만한 것, 또한 내가 그 기호의 뜻이라 부르고자 하는 것, 그 속에 제시 양식이 포함되

24) Currie, G. *Frege An Introduction to His Philosophy*, 1982, pp. 108-112.

어 있다.²⁵⁾

따라서, 프레게가 거부한 것은, 동일성이 이름들간의 관계임이 아니라, 이름과 그 지칭체간의 관계가 항상 자의적이라는 점이다. 프레게에 따르면 때로 동일성 관계는 사물이 주어지는 방식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 우리는 복합적이면서 그 부분들의 뜻에 의존하는 어떤 표현을 써서 대상들을 우리에게 주어지는대로 기술할 수 있다. 우리는 한 점이 두 직선의 교점임을 그 점이 다른 두 직선의 교점임을 모른 채 알 수도 있다. 우리는 그것을 ‘직선 a와 b의 교점’ -- 그 부분들이 이미 뜻을 가지면서 전체에 뜻을 부여해주고 있는 표현 -- 이라고 기술하면서도, 그 점이 ‘직선 b와 c의 교점’이라고도 참되게 기술될 수 있음을 모를 수 있다. 이는 동일성 진술의 진리를 발견함으로써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프레게 퍼즐의 초점이 이 자의성의 문제였다면 이는 굳이 뜻/지시체 구분 이론에 호소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음을 러셀은 그의 기술이론을 통하여 훌륭히 보여주지 않았던가? 더욱이 프레게의 뜻/지시체 구분이 이 자의성을 얼마나 해결했는지도 의문이다. 뜻이란 객관적인 것임을 프레게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실 프레게는 뜻의 객관적 식별 기준을 명시적으로 상술한 적이 없다는 점으로도 악명높다. 그런 점에서 러셀리안들의 프레게에 대한 비판의 한 측면이 뜻 개념의 자의성에 있었음은 그 비판이 설령 프레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일단 유념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또한 왜 자의적 협약을 보고하는 진술은 아무런 인식적 내용도 갖지 말아야 하는가도 문제다. 현대 물리학에서의 각종 단위 기준들에 대한 정의도 결국은 자의적 협약이지만, 이 협약은 자의적이기 때문에 아무런 인식가치도 없다고 프레게가 생각했겠는가?

이러한 의문들은 “뜻과 지시체에 관하여”에서의 「개념기호」 이론에 대한 비판의 초점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만다.

25) *ibid.*, p. 57.

V. 지역 공리의 인식 가치

사실 논문 “뜻과 지시체에 관하여”만 보면 프레게의 전회의 동기를 이해할 수 없다. 여기서 이 논문에 앞서 뜻/지시체 구분 이론이 최초로 논의되고 있는 논문 “함수와 개념”(1891)에서 그 단서를 살펴볼 수도 있겠다.

“함수와 개념”은 명백히 프레게 논리주의 작업의 일부로서, 여기서 이른바 함수의 지역 개념이 최초로 도입되며, 프레게의 환원주의 프로그램에 본질적이라고 여겨지는, “함수 f 의 지역은 함수 g 의 지역과 동일하다” 형식의 진술들은 “함수 f 와 g 가 동일한 논항들에 대해서 같은 값을 갖는다”와 동치라고 말하는 원리를 옹호한다.

함수들의 값들이 같다(equal)는 취지의 일반 진술을 상등성, 즉 지역들의 상등성으로 간주할 가능성은, 내 생각엔, 증명가능하지 않고, 논리학의 근본법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²⁶⁾

이 원리는 「근본법칙」에서 논리적 공리(공리 V)로 다시 나온다. 동치관계를 동일성 진술로 간주하는 그의 관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술된다:

$$(xf(x)=yg(y)) = \forall z(f(z)=g(z))^{27)}$$

이 공리가 그의 산수 도출에 본질적임을 그가 알고 있고, 또 그의 계획은 산수가 논리학의 일부일 뿐임을 보이는 것이었으므로, 그는 이 공리를 도대체 논리적 원리로 볼 이유가 무엇인지를 곧 물었음에 틀림없다.

「개념기호」의 동일성 해명은, 사실상, 그런 이유들을 전혀 제공할 수 없었다. 동일성 기호 양변의 표현들은 분명 상이한 결정방식을 갖고, 「개념기호」에 따르면 그런 종류의 진술들은 분석적이라기보다는

26) 「번역선」, p. 26.

27) 「근본법칙」, p. 105.

종합적이다. 만일 공리 V가 논리적(그리고 분석적) 진리로서 나와야 한다면 새로운 동일성 진술의 해명과 새로운 의미 해명이 요구된다.

“함수와 개념”에서 프레게는 형식과 내용에 관한 로체式의 구분의 상기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이는 치역에 관한 논리학의 근본법칙으로 여겨지는 것의 논의의 맥락에서 최초로 나오는 뜻/지시체 용어법에 의해 무시된다. $\dot{x}f(x)=\dot{y}g(y)$ 형식의 진술로부터 $(\forall x)(f(x)=g(x))$ 형식의 진술로의 단계를 고찰하면서, 그는 後者が “동일한 뜻을 상이한 방식으로 표현한다”고 썼다.²⁸⁾ 바로 이점에서 새로운 전문적 뜻 개념이 최초로 등장한다. 이에 대해 더미트(Dummett)는 프레게가 공리 V의 양변이 같은 뜻을 갖는다는 “함수와 개념”에서의 주장을 결코 다시 반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치역 도입의 정당화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근본법칙」에서, 이 주장은 반복되지 않는다. . . “함수와 개념”에서의 언급은 분명 뜻/지시 구분 이전의 그의 초기 양식의 사상으로부터의 찌꺼기다; 그가 새로운 구분에 대해서 그 이상의 반성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주장을 지탱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²⁹⁾

그러나 사이먼스(Simons)는 프레게가 공리 V의 양변이 같은 뜻을 갖는다고 생각했다는 한 가지 간접적 징후를 「근본법칙」 §10에서의 이 공리에 대한 논의에서 찾는다.³⁰⁾ 프레게는 공리 V가, 언제 치역들이 동일한지만 말하고, 그것들이 어떤 대상들인지는 명시적으로 단언하지 않으므로, 그 지시체를 저절로 고정시키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를 대상들의 임의의 변환 X의 고찰에 의해 보이고, 또 이 역시 공리 V를 보존함을 보인다. 이 논증의 도입에서, 그는 X가 모든 대상들의 全單射(bijection)이므로, ‘ $X(\dot{\epsilon}\phi(\epsilon))=X(\dot{a}\Psi(a))$ ’는 ‘ $(x)(\phi(x)=\Psi(x))$ ’와 *gleichbedeutend*라 말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그 뜻이 동일

28) 「번역선」, p. 27.

29) Dummett, M. *The Interpretation of Frege's Philosophy*, 1981. p. 532.

30) Simons, P. Why is there so little sense in Grundgesetze?, *Mind*, vol. 101, 404. October, 1992 및 The next best thing to sense in Begriffsschrift, in Biro, J. & Kotatko, P.(1995) 참조.

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각주를 첨부한다³¹⁾. 이는 ‘($\exists x(\epsilon)=\alpha \Psi$ (a))’의 뜻이 ‘($x)(\Phi(x)=\Psi(x))$ ’의 뜻과, 그것이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되든 아니든, 동일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러나 두 節의 구문론적 구조가 전혀 다른데, 어떻게 그 뜻이 매번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 따라서 동일한 뜻이 구문론적으로 전혀 다른 표현들에 의해 표현될 수 있고, 이는 결국, 定義들 속에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슬루가도 더미트의 주장에 회의를 표명하면서 「근본법칙」의 같은 節을 인용하고 있다.³²⁾

나는 “함수 $f(x)$ 가 함수 $g(x)$ 와 같은 치역을 갖는다”는 말을 “함수 $f(x)$ 와 $g(x)$ 가 동일한 논항에 대해 같은 값을 갖는다”는 말과 *gleichbedeutend*로서 사용한다.

여기서 번역되지 않은 채 남겨둔 단어는, 一見, “같은 것을 지칭함” 또는 “같은 것을 나타냄”이라고 해석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런 번역들이 사실상 옳은지는 문제다. 「근본법칙」 §27에서 그 반례를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이름을 정의에 의해 도입할 때 그 이름이 친숙한 기호들로 이루어진 어떤 이름과 같은 뜻과 같은 지시체를 갖는다고 약정함으로써 도입한다. 그 때문에 그 새 기호는 그것을 설명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과 *gleichbedeutend*가 된다.³³⁾

여기서 명백히 단어 “*gleichbedeutend*”는 단지 “같은 지시체를 가짐” 뿐 아니라 “同義的”임도 의미한다. 또 만일 이 번역이 옳다면, 프레게는 공리 V의 양변이 같은 뜻을 갖는다고 명백히 아직도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설령 궁극적으로 그가 이점에 관하여 마음을 바꾸었다 해도, 그가

31) 「근본법칙」 p. 46n.

32) Sluga, H. *Semantic Content and Cognitive Sense*, 1986, pp. 59-61.

33) 「근본법칙」, pp. 82-3.

당초에 뜻 개념을 왜 공리 V가 종합적 진리가 아닌지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지, “뜻과 지시체에 관하여” 서두의 불만족스러운 논증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은 남는다.

어쨌든 그렇다면 프레게의 퍼즐에 나오는 인식가치의 차이란 정확히 뜻의 차이에 대응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점은 또 어떻게 해명되어야 하는가?

슬루가는 이를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³⁴⁾ 정보적임과 시시함의 구분이 다음과 같이 보다 세분화될 수 있다. (1) 의미론적으로도 인지적으로도 시시함, (2) 의미론적으로 시시하면서도 인지적으로 정보적임, (3) 의미론적으로 정보적이면서 인지적으로 시시함. (1)의 예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리스토텔레스다”와 같은 동어반복을, (2)의 예로 “전쟁은 전쟁이다”처럼 동어반복처럼 보이지만, 인지적으로 동어반복일 수 없는 것을, 그리고 (3)의 예로 「근본법칙」의 공리 V를 들고 있다. 슬루가의 구분의 요점은 분명하다. 만일 ‘a=b’ 형식의 진술을 논리적 참으로 간주하려면, 두 표현 ‘a’와 ‘b’가 같은 것을 나타낼 뿐 아니라, 같은 의미도 가져야 한다고 가정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요구되는 의미의 같음이란, 공리 V에서 보다시피, 상이한 형식의 (따라서 의미론적으로 정보적인) 진술들이 논리적으로 동치일 수 있다는 말이다. 공리 V는 의미론적으로 정보적이지만 인지적으로 뻔한(obvious) 것으로서 의도되었다는 것, 요컨대 우리의 지식을 확장시켜주는 분석판단이 가능함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개념기호」에서 ‘a=b’ 형식의 동일성 진술을 칸트적 의미에서 종합적이라고 본 것에 반대하여, 분석적이면서도 인식가치가 있는 동일성 진술로서의 그 지위를 새롭게 하자는 것이 이른바 프레게의 퍼즐을 통해 부각시키려 한 진정한 프레게의 의도였다는 것이다. 프레게에 따르면, 공리 V는 어떻게 같은 내용이 두 상이한 방식들로 파악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 파악은 증명에 의한 파악이 아닌, 직접적, 직관적 파악이다. 이점은 前期의 순수 의미론적 용어로 해명될 수 없으며, 새로운 인식적 의미 개념으로서 뜻 개념을 요구한다는 것이 슬루가의 해석이다.

34) Sluga, H. *ibid.*, pp. 53 ff.

그러나 이 해석은 원래 프레게가 퍼즐로서 제시한 “셋별=개밥바라기”와 같은 (슬루가의 구분에 따르면) 의미론적으로도 인지적으로도 정보적인 형식의 동일성 진술과 “셋별=셋별”과 같은 동어반복형 동일성 진술과의 인식가치 차이의 해명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리 V의 인식가치에 대한 해석으로는 타당할 수 있겠으나 원래의 프레게의 퍼즐에 대한 해석으로는 편협하다.

슬루가의 해석이 공리 V에 치중한 편협함을 보였다면 프레게 퍼즐에 대한 전통적 해석들은 또한 “셋별=개밥바라기”, “셋별=셋별”과 같은 예에만 주목하는 편향성을 보여 왔다. 특히 “ $a=b$ 형식의 진술들은 우리 인식의 매우 가치있는 확장을 흔히 포함하며 언제나 선형적으로 확립될 수는 없다”는 “뜻과 지시체에 관하여”에서의 구절은 인식가치의 차이란 곧 세계에 관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정보내용의 차이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의 결정적 논거로 지목되어 왔다. 그러나 구태여 슬루가의 해석이 아니더라도 $a=b$ 형식이지만 결코 세계에 관한 정보내용이라고는 보기 힘든 공리 V의 경우가 있음은 전통적 프레게 해석 또한 그릇되거나 적어도 편협된 것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프레게의 문헌상으로 전문적 뜻 개념이 왜 공리 V와 관련된 위의 구절에 최초로 등장했는지를 설명해주면서, 또한 공리 V와 “셋별=개밥바라기”과 같은 이질적 동일성 진술들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양자의 공통 접점에서 프레게 퍼즐에 대한 해석의 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VI. 논리적 가치로서의 인식가치

뜻과 지시체를 구분함으로써 새로 등장한 것은 무엇보다도 뜻 개념이었다. 물론 그의 지시체 개념도 통상의 지시체 개념과 다른 특이성을 보이지만, 그의 뜻 개념이야말로 프레게의 퍼즐에서 인식가치의 차이를 해명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직관적으로 공리 V와 “셋별=개밥바라기” 및 “셋별=셋별”의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동일성 진

술의 형식이라는 점 외에는 없어보인다. 그런 데에도 처음 두 진술은 우리 인식의 가치있는 확장을 포함하고 세 번째 것은 그렇지 못하며, 또 그럼으로써 인식가치의 차이들이 생긴다면, 그 차이는 뜻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것이 프레게의 진단이다. 위의 동일성 진술들은 더 이상의 공통점은 없는가? 프레게가 이 진술들을 등장시키는 문맥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더 생각해볼 수 있다. 단, 앞서 말한대로 프레게가 원래 언어철학자라기보다 수학자요 논리학자라는 전제 하에서 그렇다. 공리 V는 산수를 논리학의 일종으로 환원하려는 논리주의 계획을 실현하려는 과정에서 프레게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던 논리법칙의 하나로 등장한다. 후자의 두 동일성 진술은 그가 최초로 고안한 현대적 논리학을 소개한 「개념기호」에서의 동일성에 관한 해명을 비판하기 위해 예시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함수와 개념”에도 유사한 “셋 별”, “개방바라기” 예가 등장한다. 이 두 문맥의 공통점은 논리학과 관련된 문맥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동일성 진술의 인식가치를 논리학과 관련하여 살펴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프레게에 따르면 “논리법칙들”은 “가장 일반적 법칙들”로서, 도대체 우리가 사유할 수 있으려면 마땅히 따라야 할 사유 방식을 보편적으로 규정한다.³⁵⁾ 즉, 논리학은, 우리의 판단, 주장, 추론 등의 실행을 규범적으로 지배하는 표준들을 설정한다. 그러자면 판단에서 논리적 평가를 받는 특징들을 상세히 규명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지시체에의 호소만으로는, 논리적 평가의 측면에서 구분되어야 할 문장들간의 차이를 해명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문장의 뜻과 지시체 구분을 최초로 주장한 “함수와 개념”에서의 프레게 논증을 보자.

... ‘ $2^4=4^2$ ’ 과 ‘ $4 \times 4=4^2$ ’ 은 상이한 사유를 표현한다; 그리고 그 래도 우리는 ‘ 4×4 ’ 로 ‘ 2^4 ’ 를 대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두 기호는 같은 지시체를 갖기 때문이다. 그 결과 ‘ $2^4=4^2$ ’ 과 ‘ $4 \times 4=4^2$ ’ 는 마찬가지로 같은 지시체를 갖는다. 이로부터 우리는 지시체의 동일성으로부터 사유의 동일성이 뒤따르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35) Frege, G. *Posthumous Writings* Trans. by P. Long & R. White, Chicago, 1979 p. 12, 128, 145, 146-47.

뜻과 지시체를 구분해야 한다. '2⁴' 과 '4²' 은 확실히 같은 지시체를 갖는다. 즉, 같은 數에 대한 고유명사다; 그러나 같은 뜻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2⁴=4²' 과 '4×4=4²' 는 같은 지시체를 갖지만 같은 뜻을 갖지는 않는다.³⁶⁾

사실 이 논증은 문장의 뜻과 지시체의 구분을 위한 논증이지 인식가치의 차이 해명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도입된 뜻개념은 판단에 대한 논리적 평가의 측면과 연결되고 이는 다시 문장의 인식가치를 해명하는 데 다음과 같이 관련된다. 프레게에게서 하나의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어떤 특정의 사유(문장의 뜻)가 참이라는 지식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판단의 내용에는 뜻(사유)과 지시체(진리치)라는 두 요소가 있는 바, “우리는 문장의 지시체에만 관심을 둘 수는 없다. 그러나 또한 단지 사유만으로는 어떤 지식도 산출하지 않으며, 사유가 그 지시체, 즉 그 진리치와 함께 해야만 한다.”³⁷⁾ 그런데 “인식가치는 지시체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뜻이야말로 본질적이며, 그것이 없이는 도대체 아무 지식도 가질 수 없다.”³⁸⁾

우리는 수학의 진리들이 공리에 입각하여 분석적으로 증명된다고 해도 그 증명을 누구나 항상 인식적으로 시시한 것이라고 치부하지는 않는다. 같은 결론이라 해도 그 증명의 길은 상이할 수 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방식은 수십 가지나 된다. 직각삼각형의 직각을 이루는 각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그 대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다는 피타고라스 정리는 전형적인 동일성 진술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식의 매우 가치있는 확장을 포함하며 언제나 선형적으로 확립될 수는 없다. 아마도 이 정리를 증명하지 못한 채 이 정리가 주장하는 내용을 경험적으로 알아낸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 사실을 이용하여 다른 기하학적 사실들을 추론해갈 수도 있을 것이다. 매일 아침 새로운 태양이 아니라 항상 똑같

36) 「번역선」, p. 29

37) 「번역선」, p. 65

38) Frege, G. *Philosophical and Mathematical Correspondence*, ed. by B. McGuinness, Oxford, 1980, pp. 164-5.

은 것이 떠오른다는 발견도 마찬가지다. 오늘날에도 어떤 작은 惑星이나 彗星의 식별이 항상 자명한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을 다시 같은 것이라고 재인식(recognition)할 수 있음은 프레게가 말하는 인식가치의 주된 요소를 이룬다. 결국은 그 지시체가 같다고 해도, 즉 문장의 경우 그 진리치가 같다고 해도,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다시 그것으로부터 또다른 지시체어로(문장의 경우엔 같은 진리치이겠지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서 인식가치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 $a=a$ ” 형식의 동일성 진술은 그것이 참임을 아는 데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 및 그것이 참임을 알고 나서 다른 어떤 새로운 참을 알게 해주는 데에서의 기여도가 시시하다. 그러나 “ $a=b$ ” 형식의 동일성 진술은 선형적이든 후형적이든 간에 항상 시시하지는 않고 흔히는 매우 귀중한 지식의 확장을 이룬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를 별도로 알고 있던 사람에게 “지킬 박사=하이드씨”라는 동일성 진술이 참임을 알기까지의 과정 및 그것을 알고나서의 그의 지킬 박사에 대한 믿음 체계에 초래될 변화는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참임을 알기 전까지 그의 믿음 체계는 인지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결함은 일단 “지킬 박사=하이드씨”의 참임을 수용하면 제거된다. 중요한 점은 인지적으로 결함이 있던 동안에도 그의 믿음 체계가 논리적 결함(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킬 박사는 살인범이 아니며 하이드씨는 살인범이라는 믿음 체계는 “지킬 박사=하이드씨”가 참임을 수용하기 전까지는 논리적으로 모순된 체계라 할 수 없다. 이 때 이 동일성 진술이 참임을 수용하면 그는 지킬 박사가 살인범이 아니라는 거짓 믿음에서 벗어나는 가치 있는 인지적 성취를 이루게 된다. 이 가치 있는 인지적 성취에 연루된 인지적 이행이란 곧 “지킬 박사=하이드씨”가 참임을 믿게 됨이다. 그러나 “지킬 박사=지킬 박사”가 참이라는 믿음은 이런 인지적 성취를 초래할 가능성이 미미하거나 또는 전혀 없다. 프레게가, “우리 지식의 가치있는 확장”을 말할 때에, 바로 위와 같은 의미있는 인지적 성취를 염두에 두었다고 본다면, 이미 $a=a$ 임을 알고 있더라도, $a=b$ 임을 믿음은, 구태여 “ $a=a$ ”와 “ $a=b$ ”가 나타내는 정보내용상 차이 등을 가정함이 없이도, “우리 지식의 가치있는 확장”을 결과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 진술을 수용함으로써 얼마나 새로운 다른 진술들로의 이행을 정당화해줄 수 있는가를 그 진술의 논리적 가치라 하자.³⁹⁾ 이 논리적 가치는 지시체의 측면만으로는 해명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뜻과 동일시되는 것도 아니다. 직관적으로, 문장의 인식가치의 차이는 그 문장이 표현하는 사유의 진리치 확립 방식의 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논리적 가치의 차이는 인식가치 차이의 주요한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물론 또다른 구성요소는 그 문장이 참임을 알게 되기까지의 지시체 결정 과정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논리적 가치에 의거한 인식가치 해석이 “ $a=b$ ” 형식의 진술이 공리 V처럼 선험적일 때에도 “셋별=개밥바라기”처럼 후험적일 때에도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이 논리적 가치의 차이야말로 프레게가 퍼즐이라고 생각했던 동일성 문장들간의 인식가치 상의 차이를 러셀리안들이 말하는 의미론적 정보내용의 차이나 「개념기호」에서와 같은 메타언어적 정보 등을 동원하지 않아도, 표현과 그 지시체간의 자의성에 빠지지 않은 채 해명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39) 논리적 가치란 말은 Taschek의 논리적 잠재력(potential)이란 말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다. Taschek, W., Frege's Puzzle, Sense, and Information Content, *Mind*, vol. 101, 404. October, 1992, p. 787 이하 참조.

참고문헌

- Biro, J. & Kotatko, P. (eds) *Frege: Sense and Reference One Hundred Years Later*, Dordrecht, 1995
- Carl, W. *Frege's Theory of Sense and Reference: its Origins and Scope*, Cambridge, 1994
- Corazza, E & Dokic, J. "Why is Frege's puzzle still puzzling?" in Biro, J. & Kotatko, P.(1995)
- Currie, G. *Frege An Introduction to His Philosophy*, Sussex, 1982
- Dummett, M. *Frege: Philosophy of Language*, London, 1973
- Dummett, M. *The Interpretations of Frege's Philosophy*, London, 1981
- Dummett, M. *Frege: Philosophy of Mathematics*, Cambridge, 1991
- Frege, G. *Begriffsschrift, eine der arithmetischen nachgebildete Formelsprache des reinen Denkens* (1879); Eng. trans. by Stefan Bauer-Mengelberg in van Heijenoort 1967.
- Frege, G. *Grundlagen der Arithmetik*(1884), trans. by J. L. Austin, *The foundations of arithmetic*, Oxford, 1953
- Frege, G. *Grundgesetze der Arithmetik*(vol 1, 1893, vol 2, 1903), ed. & eng. trans. by M. Furth, *The Basic Laws of Arithmetic*, Berkeley, 1964
- Frege, G. *Translations from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Frege* eds. by P. T. Geach & M. Black, 1952
- Frege, G. *Posthumous Writings* Trans. by P. Long & R. White, Chicago, 1979
- Frege, G. *Philosophical and Mathematical Correspondence*, ed. by B. McGuinness, Oxford, 1980
- Haaparanta, L. & Hintikka, J. (eds) *Frege Synthesized*,

Dortrecht, 1986

Heijenoort, J. van, *From Frege to Gödel, A Source Book in Mathematical Logic*, Cambridge, 1967

Salmon, N. *Frege's Puzzle*, Cambridge, 1986

Simons, P. Why is there so little sense in Grundgesetze?, *Mind*, vol. 101, October, 1992

Simons, P. The next best thing to sense in Begriffsschrift, in Biro & Kotatko(1995)

Sluga, H. *Gottlob Frege*, London, 1980

Sluga, H. Semantic Content and Cognitive Sense, in Haaparanta, L. & Hintikka, J.(1986)

Taschek, W. Frege's Puzzle, Sense, and Information Content, *Mind*, vol. 101, 404. October, 1992